

주님의 회복 안의 네 가지 큰 기둥

(토요일—오전 1부 집회)

메시지 7

세 번째 큰 기둥—교회

(2)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는 길—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혼 생명을 잃어버림

성경: 마 16:16-28

I. 마태복음 16장에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는 길이 계시되어 있고, 건축의 원수 또한 계시되어 있다—마 16:16-28.

- A.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반석이신 그분 자신 위에, 변화된 사람인 베드로와 같은 그런 돌들로 교회를 건축하신다—마 16:16-18.
- B. 음부의 문들, 곧 사탄의 권세 혹은 어둠의 세력은 주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을 좌절시키려고 교회를 공격한다—마 16:18.
- C.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해 주님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셔야 했다—마 16:21.
 - 1.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산출되었다—요 12:24.
 - 2. 교회를 건축하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비교 고후 4:10-12, 갈 2:20.
- D. 베드로는 선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책망하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마 16:22.
 - 1.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사탄이 음부의 문들 중 하나인 베드로의 자아라는 문을 통해 나와서 주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려는 것을 좌절시키려고 하였다—마 16:23.
 - 2. 자아와 생각과 혼 생명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려고 나오는 주된 문들이다—마 16:23-26.

II.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세 가지 열쇠를 사용함으로써 음부의 문들을 닫는 데 달려 있다—마 16:24-26.

- A. 우리는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마 16:24.
 - 1. 자아는 사탄의 체현이다. 자아는 혼에 사탄적인 생각, 곧 사탄의 생각이 더해진 것이다—창 3:1-6, 마 16:22-23.
 - a. 자아는 혼 생명의 체현이고, 생각을 통해 표현된다. 따라서 자아와 혼 생명과 생각은 하나 안의 셋이다.
 - b. 이 셋의 배후에는 교회를 손상시키기 위해 자아를 조종하는 사탄이 있다—마 16:23.
 - 2. 자아는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포하는 혼이다.
 - a.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귀하게 여기시기보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마 7:21-23.

- b. 몸의 원수는 자아이다. 자아는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자아가 바로 몸을 건축하는 것을 가장 크게 좌절시키고 반대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 (1)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몸, 곧 형제자매들을 의지해야 한다—출 17:11-13, 행 9:25, 고후 11:33.
 - (2) 주님과 몸은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가 몸을 의지한다면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몸에게서 독립적이라면 자동적으로 주님에게서 독립적인 것이다.
 - (3) 우리가 의존적일 때 자아가 사라지고, 자아 대신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갖고 평안으로 가득 하게 된다.
 - 3. 자아가 십자가로 완전히 처리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만질 수 있고 몸을 알게 된다.
 - 4. 우리는 자아의 다음 방면들을 부인해야 한다.
 - a. 야심과 교만과 자만—마 20:20-28, 벰전 5:5, 롬 12:3, 민 12:1-10, 16:1-3, 빌 2:3-4.
 - b. 자기 의, 자기 정당화, 다른 이들을 폭로하고 비판하고 유죄 판결함—마 9:10-13, 눅 18:9-14, 벰전 4:8, 요 3:17, 8:11, 눅 6:37, 마 7:1-5.
 - c. 자아 성찰과 자기 비하—아 2:8-9, 고전 12:15-16.
 - d. 교회나 인도하는 이들이나 성도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함—마 6:14-15, 18:21-35, 막 11:25-26, 골 3:13.
 - e. 낙심과 좌절—롬 8:28-29, 고후 4:1.
 - f. 자기 사랑, 자기 보존, 자기 추구, 자기 연민—마 13:5, 20-21.
 - g. 불평, 따짐—출 16:1-9, 빌 2:14.
 - h. 타고난 기호와 선호에 근거한 타고난 애정(친구 관계)—마 12:46-50, 빌 2:2하, 고전 12:25.
 - i. 자기 의견을 고집함, 의견을 달리함—요 11:21, 23-28, 39, 행 15:35-39, 비교 고전 7:25, 40.
 - j. 개인주의적임, 독립적임—고전 16:12.
 - 5.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앎으로써 자아를 부인할 수 있다—빌 3:10, 비교 아 2:8-9, 14.
- B. 우리는 ‘십자가를 짐’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마 16:24.
- 1.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다—비교 마 26:39.
 - a. 주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생명이 해방되어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자 하셨다—요 12:24, 고후 4:12.
 - b.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자 하셨다.
 - 2. “자기 십자가를 지고”(마 16:24)라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안의 모든 형제자매도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를 갖기 위해 교회를 짊어지고 모든 성도들을 짊어지는 것이다—요 17:21-23, 엡 4:3, 13, 고전 1:10, 빌 2:2.

4.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부활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십자가에 머물며, 매일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의 종결 아래 두어야 한다—눅 14:27, 롬 6:6, 갈 2:20, 빌 3:10, 고전 15:31.

C. 우리는 혼 생명을 잃어버림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마 16:25.

1. 혼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혼이 자신의 누림을 얻도록 허락함으로써 자아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혼의 누림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 a. 하나님을 사람의 영 안에 받아들이고 혼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기쁨과 오락이어야 한다—비교 느 8:10, 롬 14:17.
 - b. 주 예수님은 오는 시대에서 그분의 혼 생명을 얻으시기 위해 이 시대에서 그분의 혼의 누림을 잃으셨다(요 10:11, 사 53:12). 우리도 반드시 동일하게 해야 한다.
 - c.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 혼 생명을 구원한다면, 오는 시대에서 우리 혼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 혼 생명을 잃는다면 오는 시대에 얻을 것이다—마 16:25.
 - d.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혼 생명을 미워하고 부인해야 하며, 죽기까지 우리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전 16:22, 2:9, 눅 14:26, 9:23, 계 12:11.
2. 우리가 주님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의 현재의 혼적인 누림을 모두 기꺼이 잃어버리고자 한다면,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양육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 건축될 것이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다—히 12:2.
3. 왕국의 출현 안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의 기쁨에 참여하는 왕국 보상은 우리가 이 시대에 혼 생명을 구원하거나 잃는 데 달려 있다—마 16:25-28, 25:21, 23.

사역의 말씀에서의 발취

자아에 의해 교회가 손상됨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해석이 아니요 적용이다. 역사를 통해 볼 때 교회는 주로 유대교나 영지주의에 의해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주로 자아에 의해 손상을 입었다. 마르틴 루터는 언젠가 말하기를 그가 교황을 두려워하지만,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더 강한 교황, 즉 자아를 더 두려워한다고 했다. 어떤 것도 자아보다 더 교회의 건축을 손상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은 없다. 자아는 혼의 체현으로 생각을 통해 표현된다. 따라서 자아와 혼과 생각은 셋 안의 하나이다. 이 셋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생활을 손상시키려고 자아를 조종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위해 이러한 말씀을 경고로 받아야 한다.

단순히 자아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교회생활을 떠났다. 1948년 상하이에는 자아로 충만하고 그의 혼은 어느 누구도 잠글 수 없는 열린 문이었던 한 형제가 있었다. 그는 장로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갖고 있었고, 교회의 상황에 대해 자주 불평했다. 어느 날 그는 부정적인 많은 것들을 말하려고 집회에서 일어났다. 그가 부정적인 것들을 말한 후에 나는, “형제님,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곳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곳에 관해 나에게 말해주십시오. 나도 함께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곳을 발견할 수 없다면 제발 조용히 여기에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교회 집회에 오기를 그치고 그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으며 순회 전도사를 고용했다. 의견을 달리했던 그 형제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이 전도사는 위치만 니 형제님을 대적하는 긴 기사를 썼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형제는 교회생활에 손상을 입혔으며 동시에 그 자신은 교회생활을 잃어 버렸다. 이것은 자아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베드로가 되지 못하고 바요나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에게는 어떤 건축도 없었다. 이것은 사탄이 자아를 통해 나온 결과였다.

실족한 것의 심각성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정직과 사랑으로 한 마디 하는 것을 허락하기 바란다. 실족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무심코, “나는 교회생활에서 실족했습니다. 장로들과 다른 인도하는 분들이 나를 실족하게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족케 할지라도 여러분은 항상 먼저 견뎌야 한다. 나는 한편으로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책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이 실족한 것에 대해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다면 실족할 수 없다. 자아를 감금하는 자아 부인의 열쇠를 사용한다면, 실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자아가 너무 열려서 우세하기 때문이다. 자아의 열린 문을 통해 사탄은 나오고 우리는 실족한다.

아마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가 틀릴 수도 있지만, 교회가 틀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실수할 때에도 그는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이다. 교회가 옳든 그르든 그것은 여전히 교회이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나 누군가에 의해 실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어떤 변명도 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의 건축을 좌절시킨다.

자아 부인의 열쇠를 사용함

우리가 보았듯이, 마태복음 16장은 교회의 건축과 음부의 문들과 천국의 열쇠들에 관해 말한다. 교회는 문들을 잠그는 열쇠들이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 이러한 열쇠들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아직도 건축되지 못했다. 우리는 건축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를 만지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에는 자아가 열린다. 우리가 음부에게 열리기 때문에 음부, 곧 사탄으로부터 어떤 것이 나온다. 자아를 걸어 잠그는 자아 부인의 열쇠를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실족하지 않는 길은 자아를 부임함으로써 자아를 걸어 잠그는 것이다. 실족하지 않는 이들에게 복이 있을지이다!

실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심판대를 세우실 때, 그분은 우리와 결산하자고 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곳에서 왜 실족했는지를 물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 변명한다면 주님은 그것들을 용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문제는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이다. 어떤 바이러스들은 매우 전염성이 강하지만, 어떤 바이러스도 책상을 병으로 앓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실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아로 충만하다는 증거이다. 나의 자아가 잠겨 있다면, 여러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 나를 어떻게 대하든,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타고난 애정이 없음

앞에서는 실족하는 것에 관해 말했었다. 이제 타고난 애정에 관해 한 마디 하고 싶다. 교회생활 안에는 어떤 타고난 우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특정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특별한 친구로 간주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이 자아로 충만하다는 암시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기호에 어울리고 여러분은 그들의 기호에 맞다. 여러분은 서로의 기호를 살찌운다. 이것은 매우 손상시키는 것이고 건축을 방해한다.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 사이에는 순수하고 신성한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어떤 사적인 애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적인 애정이 성도들과 여러분의 관계 안으로 끼어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아로 충만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교회생활 안에 그런 애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에게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동일하다.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애호가 있는 것은 자아로 충만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베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을 손상시킨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친구들이 아닌 우리의 형제자매들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얻어야 한다. 교회생활 안에 있는 주님의 건축을 위해 타고난 것은 무엇이나 제거되어야 한다. 어떤 타고난 애정이나 관계나 느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타고난 애정을 두려워해야 하

고 그것을 피해야 한다. 어떤 형제가 나를 타고난 애정으로 사랑할 때마다 나는 깜짝 놀란다. 그때는 내가 자아를 부인하는 열쇠를 사용할 때이다. 나는 내 자신을 걸어 잠그고 그 형제의 애정을 피할 것이다. 여러분이 형제의 자아를 살찌우고 있고 그가 여러분의 자아를 살찌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아의 문을 걸어 잠그는 열쇠를 사용해야만 한다. 여러분이 자아를 걸어 잠그지 않는다면, 사탄이 자아의 문을 통해 나올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은 요나의 아들들로 남아 있게 된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되지 못할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재료로 하여 교회를 건축하시기로 불가능할 것이다.

감추어진 자아

1900여 년 전에 주 예수님은 교회를 건축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그러나 것처럼 많은 세기가 지났는데도 왜 우리에게만 아직도 건축이 없는가? 그것은 자아 부인의 열쇠가 소홀히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메시지들 안에서 교리들에 관해 말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과 모든 것을 교통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 오, 감추어진 자아! 베드로에게 선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탄이 나오는 출구가 되었던 감추어진 자아가 있었다. 나는 주님의 통찰력을 높이 평가한다. 내가 주님이었다면, 나는 통찰력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베드로의 염려를 가지 있게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즉시 자아의 문을 통해 사탄이 나왔음을 분별하셨다.

나는 교회들 안에 형제의 집과 자매의 집이 있는 것이 기쁘지만, 체험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집에서 살 때 두 종류의 결과가 있게 됨을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천연적인 우정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만족하고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실망해서는 안 된다. 실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아 안에 있다는 증거이다. 형제의 집과 자매의 집에 사는 이들의 자아는 감금되어야만 한다. 자아가 감금되면 우리에게 건축이 있게 될 것이다. 자아 부인의 열쇠를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실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감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건축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아와 혼과 생각을 잠그는 탁월한 자아 부인의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의 건축은 좌절될 것이다.

교회 건축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십시오.”라고 말한다. 이 구절 안에 있는 ‘나’는 매우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 ‘나’는 본이고 길이다. 더 나아가 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나’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있을 수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 산출되며 존재한다. 우리의 더럽혀진 자아는 물론 주님의 순결하고 죄 없는 자아까지도 부인되어야 했다.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가지도 않으셨다면, 그분은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교회도 결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좇아야 한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이 없이 교회가 건축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아 생명을 살찌우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주님, 나는 당신을 따릅니다. 나는 이 형제와 너무 많이 접촉하던 것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면, 교회의 건축은 전진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앎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수행할 수 없다고 느낄지 모른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의 바울의 말을 유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앎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세 가지 것을 알기 원했음을 본다. 즉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능력, 그분의 고난의 교통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는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나’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십자가로 갈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이러

한 것들을 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의 고난의 교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살고 계신 분이 그것을 행하실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라고 말한다. 신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면에서 사용된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주 예수님은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함께 건축될 수 있게 하는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교회의 건축을 위해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 내야 한다.

빌립보서는 건축에 관한 책이다. 빌립보의 성도들 가운데는 분리가 있었고 건축이 부족했으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건축되는 것을 도우려고 이 서신을 썼다. 바울은 이 건축이 그들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건축을 이루도록 말하고 있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건축을 놓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여러분이 형제들의 집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여러분이 처음 입주했을 때에는 형제들과 사는 것이 놀라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어떤 형제들과는 도저히 지낼 수 없음을 발견한다. 여러분이 이것에 관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 형제들의 집에 남아서 죽으라. 여러분은 이렇게 죽는 것을 견딜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단순히 그분을 따라야 한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내는지를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아 부인의 열쇠를 사용하여 주님께 다만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자아를 걸어 잠그는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 공과를 배운다면, 함께 건축될 것이고 강한 증거가 될 것이다. 또 우리는 우리가 다양한 성격과 기질과 습성과 배경을 가졌을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 건축될 수 있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것이다.

건축을 위해 자아를 감금함

마태복음 16장은 수세기 동안 가려져 있었다. 아마도 여러분은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을 알지 못한 채 거듭해서 이 장을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들을 사용함으로 교회가 어떻게 건축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한층 더 이해를 주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걸어 잠그는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생활에서뿐 아니라 가정생활 안에서도 이렇게 행해야 한다. 자아를 잠그는 열쇠를 사용한다면 결혼생활에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모든 문제들은 자아의 문을 통해 나오는 사탄으로부터 온다. 이 문이 자물쇠로 채워질 때 사탄은 감금되고 어떤 문제들도 없게 된다.

나는 이런 메시지들 안에서 교리를 관심하지 않는다. 대신에 수년의 고난을 통해 배웠던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다. 교회가 어떻게 건축될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여러분이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건축된다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교리적이다. 우리는 모든 상황 안에서 자아를 걸어 잠그는 자아 부인의 열쇠를 사용하기를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위하든 반대하든 자아를 감금해야만 한다. 형제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든 미워하고 환영하지 않든, 여전히 여러분의 자아를 가두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고 교회 건축을 갖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자아를 감금하지 않는다면 건축을 갖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45-51쪽)